

홍순상, 2년만에 정상

스바루 클래식 8연더파...통산 3승째



홍순상(30·SK 텔레콤·사진)이 한국프로골프투어(KGT) 스바루 클래식(총상금 5억원)에서 2년 만에 우승했다.

홍순상은 5일 경기도 용인 지산골프장 동남코스(파 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에 보기 5개를 쏟아내며 3타를 잃었지만 최종합계 8언더파 276타를 기록 류현우(30)와 최혁재(26·이상 6언더파 278타)를 2타 차로 꺾고 우승했다. 우승상금은 1억원.

2년 만에 우승 도전에 나선 홍순상은 경기 중반 4타 차나 앞서 여유 있는 우승이 예상됐다. 하지만 모처럼 우승 경쟁이 긴장된 듯 후반 들어 보기 4개를 적어내면서 불안했다. 다행히 추격자들도 버디와 보기를 번갈아 기록하며 타수를 줄이지 못해 2타 차 우승을 지켜냈다.

2007년 엑스캔버스오픈, 2009년 KPGA 선수권 우승에 이어 통산 3승째다.

류현우와 최혁재가 나란히 6언더파 278타를 쳐 공동 2위, 박도규(39)는 4언더파 280타로 단독 4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는 김대현(23·하이트),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 등 스타들이 대거 해외 투어로 빠져나가면서 초청선수만 18명이 출전하는 등 흥행 면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박재범이 5일 열린 일본프로골프투어 시티뱅크컵 투어 챔피언십에서 프로 데뷔 12년 만에 첫 우승했다. 박재범이 대형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 KGT

박재범, 무관 설움 씻다

JGTO 6언더파...데뷔 12년만에 첫 우승

프로 12년 차 박재범(30)이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메이저대회인 시티뱅크 컵 시시도 힐스 챔피언십(총상금 1억5000만엔·우승상금 300만엔)에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박재범은 5일 일본 아바라키현 시시도 힐스 웨스트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합계 6언더파 278타로 2위 마루야마 다이세이(5언더파 279타)를 1타 차로 제쳤다.

아마추어 시절 김대섭(30)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박재범은 2000년 프로 데뷔 후 이렇다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3년 간 발타단 성적에 거두지 못한 박재범은 2003년 군에 입대했고, 2006년 다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때도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09년 레이크힐스오픈 2위다.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박재범은 전반에 2타를 줄이면서 선두로 나섰고, 후반 13,14,15번홀 연속 버디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17번홀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냈지만 이미 4타 나 앞서 여유가 있었다.

프로 데뷔 후 11년 간 상금으로 3억여 원 밖에 벌지 못한 박재범은 이번 우승으로 약 4억여 원을 손에 넣는 대박을 터뜨렸다. 오랜 무명의 설움도 한꺼번에 씻어 냈다. 일본투어 상금랭킹 6위로 뛰어올랐고,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일본투어 풀시드까지 확보했다.

재미교포 제이 최(27)는 합계 2언더파 282타로 공동 4위, 김형대(34·토마토저축은행)와 이한주(34)는 1언더파 283타를 쳐 공동 6위에 올랐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김비오, 원아시아투어 연장점전 끝 우승

미 PGA 투어 루키 김비오(21·넥슨)가 원아시아 투어 난산 차이나 마스터스(총상금 100만 달러)에서 연장 점전 끝에 우승했다. 김비오는 5일 중국 옌타이 난산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10언더파 278타로 마이클 퉁, 크레이크 헨콕 등과 동타를 이뤘다. 18번홀에서 가진 연장전에서 김비오는 두 번째 홀까지 파로 막았고, 세 번째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했다. 2010년 8월 한국프로골프투어 조니워커오픈 이후 약 10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주영로 기자



5일 열린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데뷔 5년 9개월 만에 첫 승을 올린 윤슬아를 향해 동료들이 샴페인을 뿌리며 축하해주고 있다(큰 사진). 윤슬아가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제공 | KPGA

땀 열말과 바꾼 우승컵

‘연습벌레’ 윤슬아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8버디 7언더파...데뷔 5년9개월만의 결실

“마지막 날 잘 좀 치란 소리 이전 안 들겠죠”

“자, 이제 그런 답습니다.”

윤슬아(25·토마토저축은행)는 2006년 루키 때부터 대회가 끝나고 해가 저 연습그린을 닫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고 묵묵히 퍼트 연습을 했다. 그 열정이 데뷔 5년 9개월 만에 우승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윤슬아는 5일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 골프장(파72·6460야드)에서 열린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로 5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7언더파 209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생애 첫 우승이다.

윤슬아는 데뷔 후 매년 상금랭킹 30위 안에 드는 좋은 성적을 유지해왔고, 2010년에는 두 번의 우승 기회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4월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는 1라운드에서 선두로 나섰다가 이보미에게 역전패했고, 7월 히든밸리 여자오픈에서는 안신애에게 3타차로 우승을 내줬다. 그 뒤로 “마지막 날 잘 좀 쳐봐”라는 안타까운 격려의 소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윤슬아는 이날 우승 직후 “이제 그 소리 안 듣게 돼 다행”이라며 웃었다. 매번 웃어넘겼지만 항상 한쪽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말이였다.

윤슬아는 노력의 힘을 믿는다. 그는 “골프가 항상 잘 될 수는 없다. 톱 프로들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나도 된다는 생각을 했다. 올해 초에 성적이 잘 나지 않아 사실 좀 힘들었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연습량을 늘린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윤슬아는 대회 며칠 전부터 잃어버렸던 퍼트 감각이 살아난 것과 최종라운드에서 긴장하지 않고 플레이한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윤슬아는 “사실 17번홀까지 스코어보드를 보지 않아 상황을 몰랐다. 덕분에 샷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연습라운드 하듯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쉬운 말 같지만 이 역시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다. 윤슬아는 “평상시처럼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치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 ‘아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느껴야에만 한다”고 했다.

윤슬아는 “우승도 좋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올 시즌 목표는 3승이지만 매 대회마다 큰 기록 없이 항상 20위 안에 드는 꾸준한 플레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남자력비, HSBC 아시아 5개국 대회서 정상

한국 남자력비가 2011 HSBC 아시아 5개국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명주 감독의 력비대표팀은 4일 안산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58-19로 대승을 거둬 내년 시즌 아시아 톱(Top) 5에 오르게 됐다. 작년 이 대회에서 5위를 차지해 디비전 1로 떨어졌던 남자력비는 1일 필리핀과 예선전에서 34-20으로 승리해 말레이시아를 52-17로 꺾은 싱가포르와 결승에서 만났다. 김광모, 신용철(이상 캐논), 박성규, 안승혁(이상 NEC), 연권우(요코가와 전기), 김철(코카콜라) 등 일본과 6명이 주축이 된 한국은 최근 두 달 간 담금질을 해왔다.

올리버, IAAF 다이아몬드리그 110m 허들 우승

데이비드 올리버(29·미국)가 5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110m 허들 결승에서 12초94를 기록해 13초00에 그친 류상(28·중국)을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달 16일 다이아몬드리그 상하이 대회에서 류상에 패해 이 종목 18연승을 마감했던 올리버는 바로 다음 대회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남자 100m에선 자메이카의 스티브 멀링스(29)가 9초80의 역대 6위 기록으로 우승했다.

밴쿠버, NHL 스탠리컵 결승 2연승

밴쿠버 커넱스가 5일(한국시간) 열린 보스턴 브루인스와의 2010~2011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탠리컵 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연장 점전 끝에 3-2로 역전승해 2연승으로 1971년 창단 이후 첫 스탠리컵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김기태, 단오장사씨름대회 한라급 꽃가마

김기태(현대삼호중공업)가 단오를 하루 앞둔 5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단오장사씨름대회 3일째 한라급(105kg 이하) 결승에서 팀 동료 조준희를 3-1로 꺾었다. 김기태는 이로써 2월 설날장사대회 이후 다시 꽃가마에 오르며 한라급에서 개인 통산 6차례 우승을 맞았다. 통합장사까지 포함하면 7번째 우승이다.

임규태·류미, 국제테니스대회서 나란히 정상

임규태(579위·삼성증권)가 5일 경북 김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남자국제 퓨처스테니스대회(총상금 1만5000달러) 단식 결승에서 우디(400위·중국)를 2-0(6-2 6-2)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여자국제 챌린저대회(총상금 2만5000달러) 단식 결승에선 류미(821위·강원도청)가 세마 유리카(299위·일본)를 2-1(6-3 3-6 6-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배구대표팀 선수들이 5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배구 월드컵 D조 예선 프랑스와 경기에서 공격에 성공한 뒤 일사안고 기뻐하고 있다. 수원 |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트위터 @binytala

월드리그, 8년만에 강호 프랑스 잇따라 꺾어

한국배구 잘 나가네

한국남자배구가 강호 프랑스에 2연승을 거뒀다.

박기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5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대륙간라운드 D조 4차전에서 프랑스를 3-1(27-25 19-25 25-23 25-16)로 격파했다.

1주일 전 세계최강 쿠바(4위)를 이겼던 한국은 전날인 4일 8년 만에 프랑스를 꺾은 데 이어 이날 경기마저 잡으면서 3승1패로 승점 9점을 쌓았다. 프랑스는 세계랭킹 12위, 한국은 23위다.

한국은 이번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프랑스에 8연패로 크게 열세였지만 홈에서 기본 좋은 2연승을 올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홍석(경기대), 전광인(성균관대), 김정환(우리캐피탈)이 맹활약 했다. 레프트 최홍석이 가장 많은 17점을 올렸고, 전광인과 김정환은 각각 12점과 11점을 책임졌다. 센터 신영석(우리캐피탈)은 고비 때마다 블로킹과 속공으로 14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1세트를 듀스 끝에 따냈다. 세트 한선수의 블로킹, 하현용의 속공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며 9-3으로 리드하다가 상대 블로킹에 막혀 15-15 동점을 허용했다. 팽팽한 점전 끝에 최홍석의 블로킹으로 27-25로 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는 심기일전한 프랑스의 차지.

고비는 3세트였다. 19-21에서 김정환의 스파이크와 최홍석의 블로킹, 상대 공격 범실 등을 묶어 23-21로 단반에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최홍석이 터치아웃 공격을 성공시켰고 신영석의 속공으로 마무리했다. 4세트에서는 한때 22-14까지 앞선 끝에 손쉽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11일부터 이틀 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5,6차전을 펼친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프랑스오픈 테니스 靑출신 최초 우승컵 키스

리나, 황색 돌풍!

세계랭킹 7위의 리나(29·중국·사진)가 프랑스 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1752만유로) 여자단식에서 우승하며 아시아 국가 출신 선수로는 처음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다.

리나는 5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르에서 열린 대회 14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디펜딩챔피언’ 프란체스카 스키아보네(5위·이탈리아)를 2-0(6-4 7-6<0>)으로 완파했다. 우승컵과 함께 상금 120만유로를 거머쥔 리나는 아시아 국가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이라는 역사를 썼다.

그동안 중국계 미국인 마이클 창(미국·39)이 17세이던 1989년 역대 최연소로 프랑스오픈을 제패한 적이 있지만 아시아 국가 출신이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리나가 처음이다. 리나는 올해 호주오픈에서 아시아 최초로 결승에 진출해 김 클리스티스(2위·벨기에)에게 패해 준우승하며 주목받았지만 이후로는 한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는 1라운드와 16강에서만 1세트씩 내줬을 뿐 무실세트 승리를 이어오며 멋지게 부활에 성공, 생애 다섯번째 투어 타이틀이자 첫 메이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 순매보합 광고상대방원칙 심의월 제2011-1156호 (2011.4.25)

트렁크 속이 이수라장?
애매지 말고
에르고
ERGO

6.7월에 자동차보험 만기라면
지금의 기회!

아래 번호로 보험료만 알아봐도
트렁크 정리함을 주니까!
▶기간: 2011년 6월 30일까지(매일 선착순 200명 / 신규고객에 한함)

철두철미한 전화 번호
1544-1666 ERGO | 에르고다음다이렉트*